

心에서若干南方에位置한心礎石은矩形的自然石이南北으로 놓여上面을若干부풀게다듬어直徑九六cm의八角形一段을造出하고中央에深五cm一邊一七cm方孔內에다시深三三cm一邊一七cm의 작은方孔이二重으로있어下方孔에는舍利를安置하고上方孔은木塔의擦竿柱를插入하였던穿孔임을斟酌할수있다.

原貌를 잃은方形築壇 現在까지遺存되고있음은中央에位置한心礎石 西쪽 側近에民葬한墳墓一基의管理區域임을알겠다.

여기에出土되는瓦埵類는三國時代에屬하는土蓋瓦片其中에도赤色으로變換한것 등으로 보아 이木塔은火災를입은듯하고無紋埵類가出土된은屋內敷埵인듯하다.

慶州에新羅時代의佛敎遺蹟中の木塔址를대강추려본다면皇龍寺址 輿輪寺址, 四天王寺址, 望德址, 普門寺址, 祇林寺等六個所였으나이번

八番地)에南向하였고金堂址로認定되는木塔址北方은水畝으로變하여礎石은一基도보이지않으나瓦片만散在했을뿐이고塔址에서南方約二六m地點農路傍에石燈伏蓮台石一基가뒤집어진체路面이되고있다. 木塔址는高約一m方形一邊이約一二m의平坦한土壇이維持되고있으나周圍耕地의漸次浸蝕으로縮少되고礎石마저散亂移動되어土壇周邊에一邊六二cm의方柱礎石만이러져리놓여있다.(東側一基北側三基, 西側四基) 土壇中

에狼山西麓의逸名寺木塔址를追加하게된다. 그런데이貴重한또나의遺蹟을調査하게된動機는新羅文化同人尹京烈氏의踏査에依한着眼과現場까지의親切한案内에의함인바그勞苦를깊이感謝하는바이다.

(一九六五、十、二五)

## 瑞山文殊寺 極樂殿

李 殷 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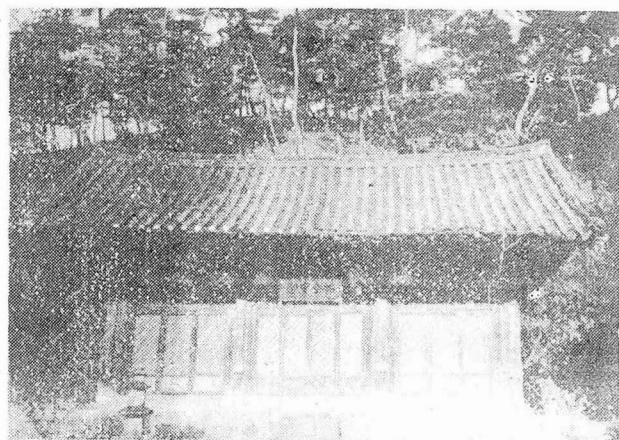
(一)

忠清南道瑞山郡雲山面胎封里的文殊寺極樂殿을調査한바있다.

一九六一年八月에開心寺重修에앞서서그基礎調査次故林泉氏와同行하였다. 修理의對象은大雄殿(寶物第一四三號)이었는데大雄殿의下段西側に있는尋劍堂의破損이極甚하여修理가緊急한狀態를보이고있었으니특히아깝게여겨이貴重한建物を살려야하겠다고하며그實測、作圖等調査作業을進行하였다(尋劍堂——一九六二年度國庫補助로修理完了)筆者는이분을맞난것도여러차례요또現場에同行한것도여러차례였지만그木造物에대한研究가깊고또古建物を아끼는두두러진誠意에새삼스레히感動하지않을수없었다. 開心寺에서一泊하고翌日에는草露에젖은타령을넘어普願寺址와雲山磨崖三尊佛立像을調査하고바른旅程을돌려文殊寺(註一)에案内하였다. 途中에「소낙비」를맞나옷을적시며目的地에當到한것이午後二時이었다. 그리고一休도없이直時이文殊寺正殿인極樂殿을調査하였고黃昏頃에雲山路頭에서惜別한以後再逢의機會를얻지못한채하음을듣고보니哀惜하기그지없다.

(二)

築臺는허우러져原形을喪失하였으나加工石材로再築造한基壇의



中央에 石階가 마련되었다. 建物은 커다란 自然石으로 된 礎石위에 前面三間 側面三間的 「맞배집」이다. 前面의 中央間은 三·六五m 左右 兩間은 三·四〇m이며 側面の 中央間은 三·〇〇m이고 前後兩間은 一·六五m의 實測値를 算出하는데 이는 殿堂建築에 있어서 中央間에서 左右間으로 가며 比例하여 縮少되는 傾向을 取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 數値에 따라 前面中央間에는 네쪽문(四分間門)이 달리고 左右兩間에는 세쪽문이 달렸는데 亦是 窓

門數의 減少의 比例(註二)를 보이고 있고 모두 礎石을 連想케 한다. 즉 마치 開心寺의 窓門 모습을 連想케 한다.

기둥윗몸에는 四面 모두 昌枋을 짜들리고 그 위에 平枋을 놓고 各四隅柱의 平枋머리에는 귀춥음을 構成하여 建物の 礎를 取하였으니 이는 마치 長谷寺 下大雄殿(註三)의 例와 相通된다.

昌枋 平枋위로는 貢包를 놓았는데 柱心包와 空間包(各間二個)를 密造羅列시키고 仰承(仰舌)에는 蓮花를 彫刻하였다. 이 蓮花의 彫刻은 建物の 年代가 降下됨을 表示한다. 檐下는 副椽을 날아 겹쳐마를 이루고 맞배집의 屋蓋의 美麗한 線을 取하였으며 特히 기와끝 끝에 夫女莫斯瓦를 잇대어 놓은 態가 더욱 아름답다.

內部는 亦是 內貢包가 昌枋, 平枋 위로 造成되고 貢包새로는 佛壁이 있고 雲宮 위로는 間壁이 있어 飛翔하는 飛天像의 壁畫가 보인다. 그리

고 天井은 우물천장(格間天井)으로 하고 蓮花紋을 아름답게 丹青하였다. 바닥은 마루를 깔고 中央 後部에 佛壇을 造成한바 精巧한 「맞집」이 架構되었다.

(三)

建物の 建立年代는 未詳하나 建築樣式上으로 보아 李朝中期로 推測한바 林泉氏도 筆者의 意見에 同調하였다. 特히 吏曹正郎 韓汝賢이 萬曆己未에 撰하였다는 湖山錄 佛宇條에

「文殊寺亦爲廢寺、映上二殿、僧窟自古相傳……略……與謀去賊穴三十餘人圍立寺、法堂及東西禪堂廊樓閣一夜盡燒、殿獨不燒云云」하였다. 이 記錄을 通하여 보면 從來의 文殊寺 伽藍모습을 짐작하고 極樂殿의 年代推定에 一助가 되는 資料다. 元來의 伽藍은 正殿인 法堂이 있고 東西로 禪堂이 相對하고 階下에 樓閣이 配置되고 또 行廊이 相連한 모습을 짐작할 수 있으니 마치 이곳에 있는 開心寺 伽藍配置(註四)에 共通되는 點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燒禍를 입어 모두 燒失되고 萬曆己未에 홀로 極樂殿이 殘存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記錄되었으니 이 極樂殿의 建立은 光海君十一(萬曆己未)以前이 確實하고 樣式上으로 十五世紀末 宣祖年代의 建物로 推定하여 補正하다.

註一 東國輿地勝覽卷六十九 瑞山郡佛宇條에 「開心寺、文殊寺、普賢寺俱在象山」이라 하였는데 李朝初에도 文殊寺가 있었고 또 現極樂殿의 前庭에 麗代의 破塔片이 殘存하니 高麗때부터 傳하는 寺刹이다.

註二 法堂建築에 있어서 窓門手法에 減少比例羅列式과 同數羅列式으로 區分되는바 ①前者에 屬하는 것은 開心寺大雄殿 長谷寺下大雄殿 來蘇寺大雄殿、無量寺極樂殿、開岩寺大雄殿等이 있고 後者에 屬하는 것은 無爲寺極樂殿、鳳停寺大雄殿、龍門寺大藏殿 傳燈寺大雄殿等이 있다.

註三 國寶圖錄第六輯二十六「長谷寺下大雄殿」條 參照

註四 考古美術 第四卷第六號、資料 申榮敷「瑞山開心寺尋劍堂의 架構(開心寺配置略圖)」參照